

# 양화사 인상: ACD 구문을 중심으로\*

곽희신  
(서울대학교)

Koak, Heeshin. 2002. *A Study on Quantifier Raising*.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 471-494. May(1985) argued that the regress problem of antecedent-contained deletion (ACD) construction could be resolved easily by positing QR. But the proposal has some conceptual and empirical problems. To resolve the problems of QR account on ACD, Hornstein(1994) suggested a new approach viz. LF A-movement approach. In the Minimalist framework, an object raises to the [Spec, Agro] to check the accusative case. Through this movement, the regress problem can be resolved naturally without QR. But the LF A-movement account has the same conceptual problem as the QR approach. In addition to the conceptual problem, it has also empirical problems which were pointed out by Kennedy(1997). To solve the problems, I propose that the object raise to [Spec Agro] overtly as Koizumi(1993, 1995) and Lasnik(1995) insisted. In addition to the proposal, I adopt another assumption that only the copy of a quantifier could become a variable by the vehicle change, which was suggested by Brody(1995). With the above proposals, the unnatural QR operation could be dispensed with and the conceptual and empirical problems which were made concerning the LF A-movement approach could be resolved.

## 1. 서론

May(1985)는 LF A'-이동인 양화사 인상 작용(Quantifier Raising, 이하 QR)을 설정함으로써 선행사 포함 삭제(antecedent-contained deletion, 이하 ACD) 구문의 역행문제(regress problem)를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May가 설정한 QR은 다음에서 드러나듯이 몇 가지 개념적, 경험적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Hornstein(1994)은 최소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QR을 제

---

\*익명의 논평자 두 분의 논평은 이 논문의 논지를 다듬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들의 도움에 감사한다.

거하고 LF A-이동에 의해 ACD 구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Hornstein의 주장도 QR이 가지는 개념적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Kennedy(1997)는 이러한 Hornstein의 주장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적 반증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가정들을 통하여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최소주의 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에서 목적어는 [Spec, Agro]로 명시적으로 인상된다(Koizumi 1993, Lasnik 1995). 둘째, 매체변환(vehicle change)은 양화사구에만 적용이 된다(Lasnik 1993, Brody 1995). 셋째, 전치사의 목적어도 일반 동사의 목적어처럼 지정어-핵관계(spec-head relation)를 통해 격을 점검받는다(Hornstein 1995). 본고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통하여 문법에서 QR을 제거하고, LF A-이동 분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최소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ACD 구문이 갖는 역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QR을 설정한 May(1985)의 주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LF A-이동에 의해 QR을 대체하고자 했던 Hornstein(1994)의 주장과 Kennedy(1997)의 반증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4장에서는 Kennedy가 LF A-이동 분석에 대해서 제기한 반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함으로써 글을 마치겠다.

## 2. QR의 설정 : May(1985)

### 2.1. ACD 구문과 QR

먼저 ACD 구문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 John *kissed Bill's mother* and Sally did [<sub>VP</sub> e] too.

(1)에서 생략된 동사구 [<sub>VP</sub> e]는 이탤릭체로 표시된 동사구 *kissed Bill's mother*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된 동사구를 (2)와 같이 동사구가 생략된 곳([<sub>VP</sub> e])으로 복사함으로써 얻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 (2) John [<sub>VP</sub> *kissed Bill's mother*] and Sally did [<sub>VP</sub> *kissed Bill's mother*] too.

그런데 아래의 ACD 구문 (3a)를 살펴보자.

- (3) a. John [<sub>VP</sub> *kissed everyone who Sally did* [<sub>VP</sub> *e*]]  
 b. John *kissed everyone who Sally did* [<sub>VP</sub> *kissed everyone who Sally did* [<sub>VP</sub> *e*]]

만약 위의 (1)에서처럼 표면 구조에서 주절의 동사구 [<sub>VP</sub> *kissed everyone who Sally did* [<sub>VP</sub> *e*]]를 복사한다면, (3b)처럼 매입문에 또 다른 동사구([<sub>VP</sub> *e*])가 생기게 되어 (3a)가 나타내는 의미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이처럼 ACD 구문에서 단순히 표면 구조에서 주절의 동사구를 복사하면 매입문에 생략된 동사구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ACD 구문의 역행문제(regress problem)라고 부른다.

위의 ACD 구문에서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운용자(operator)인 *who*가 변항(variable)을 결속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운용자가 변항을 결속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도출은 무위적 수량화(無爲的數量化, vacuous quantification)가 되어 파탄(crash)에 이르게 된다.

May는 이러한 ACD 구문의 역행문제와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가 LF에서 QR을 설정함으로써 잘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4) a. [<sub>IP</sub> [<sub>DP</sub> *everyone who Sally did* [<sub>VP2</sub> *e*]]]<sub>i</sub> [<sub>IP</sub> John [<sub>VP1</sub> *kissed* *t<sub>i</sub>*]]  
 b. [<sub>IP</sub> [<sub>DP</sub> *everyone who Sally did* [<sub>VP2</sub> *kissed* *t<sub>i</sub>*]]]<sub>i</sub> [<sub>IP</sub> John [<sub>VP1</sub> *kissed* *t<sub>i</sub>*]]

위의 (4a)는 (3a)에서 양화사구가 QR에 의해 IP에 부가된 구조이다. (4a)에서 주절의 [<sub>VP1</sub> *kissed t<sub>i</sub>*]을 동사구가 생략된 [<sub>VP2</sub> *e*]로 복사하면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위의 (4b)에서 관계대명사 *who*는 *t<sub>i</sub>*를 결속함으로써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2.2. QR의 문제점

### 2.2.1. QR의 개념적 문제점

위의 ACD 구문에 대한 May(1985)의 설명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는 QR이 가지는 몇 가지 개념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최소주의 이론에서 이동은 자질의 점검을 위한 관련 자질의 이동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문자화 이전의 이동은 음성형태에서의 합치를 위해 범주 전체가 이동하고, 문자화 이후에는 점검 관계를 이루는 자질과 더불어 형식자질(FF)만 이동한다(Chomsky 1995). 그런데 May(1985)는 QR이 LF A'-이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주 전체가 수반이동(pied-piping)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문자화 이후의 이동을 점검에 필요한 자질과 형식자질(FF)만의 이동으로 한정하는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둘째, 최소주의 이론에서 모든 이동은 형태론적 자질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만약 QR 작용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양화사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Hornstein(1999)은 실제로 의문사 자질(wh-feature)이나 초점 자질(focus feature), 주제 자질(topic feature)과는 달리 양화사 자질(Q-feature)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없으며, 따라서 양화사 자질이란 존재하지 않고 QR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1)</sup>

셋째, 만약 어떤 문법적 운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문자화 이전에만, 또는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면 이는 일관성 조건(Uniformity Condition)을 어기는 것이 된다. 그런데 QR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양동휘, 1998). 왜냐하면 QR은 아무 이유 없이 LF에서만, 즉 문자화 이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sup>2)</sup>

<sup>1)</sup>Hornstein(1999:45-46) 참고.

<sup>2)</sup>양동휘(1998)는 QR을 양화사 자질(quantifier feature)에 입각한 유인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위에서 Hornstein(1999)이 지적하였듯이 양화사 자질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가 없고, 또한 양화사 자질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LF 작용인 QR은 자질만 이동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자질의 이동만으로는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2.2.2. QR의 경험적 문제점 : Baltin(1987)

Baltin(1987)은 QR을 통해서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해결하려는 May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래의 다중 의문사 구문(multiple wh-question)을 예로 들고 있다.

- (5) a. Who thought that Fred read how many of the books that Bill did?  
 b. [<sub>CP</sub> who<sub>i</sub> [how many books that Bill did [<sub>VP3</sub> e]]<sub>j</sub> [<sub>IP</sub> t<sub>i</sub> [<sub>VP1</sub> thought [<sub>CP</sub> that [<sub>IP</sub> Fred [<sub>VP2</sub> read t<sub>j</sub>]]]]]]]  
 c. Who thought that Fred read how many of the books that Bill thought that he had read?  
 d. Who thought that Fred read how many of the books that Bill read?

위의 ACD 구문에서 의문사(구)는 의문사 병합(wh-absorption)을 위해서 (5b)와 같이 [Spec, CP]로 이동하여야 한다.<sup>3)</sup> 또한 May는 LF에서 A'-이동인 QR이 어휘요소까지 수반이동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의문사의 이동에 있어서도 (5b)처럼 의문사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까지 수반이동하여야 한다. 그러면 (5b)와 같은 구조에서 생략된 동사구(VP3)는 하위의 어느 동사구를 복사하느냐에 따라서 (5c)와 (5d)의 두 가지 해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5a)는 (5d)의 의미만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ACD 구문의 경계 제약 효과(boundedness restriction effect)라고 하는데 LF 수반이동을 전제로 하는 QR은 이러한 경계 제약 효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sup>4)</sup>

### 3. QR의 제거 : Hornstein(1994)

<sup>3)</sup>다중 의문사 구문에서 표면구조에서 논항으로 생성된 의문사가 [Spec, CP]로 이동하는 이유는 두 개의 wh-운용자가 의문사 병합(wh-absorp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운용자로 바뀌어야 올바른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Haegeman(1994:503), Higginbotham and May(1981)).

<sup>4)</sup>Baltin(198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CD 구문에 대해서 외치(extraposition)에 의한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Larson&May(1990)가 지적한 경험적 문제점들 외에도, S-구조를 제거하고 모든 문법 사항들이 LF에서 적용될 것을 요구하는 최소주의 이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개념적 문제점이 있다.

### 3.1. LF A-이동 분석

Hornstein(1994)은 ACD 구문에 대해서 경험적, 개념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QR 분석을 배제하고, 최소주의 이론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목적어의 격점점 과정을 통해서 ACD 구문이 가지는 역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 a. John bought everything that you did [<sub>VP2</sub> e].  
 b. John [<sub>T</sub> [<sub>Agro</sub> [ everything Op that you did [<sub>VP2</sub> e]]]<sub>i</sub> [<sub>Agro</sub> [<sub>VP1</sub> bought *t<sub>i</sub>*]]]  
 c. John [<sub>T</sub> [<sub>Agro</sub> [everything Op<sub>i</sub> that you did [<sub>VP2</sub> bought *t<sub>i</sub>*]]]<sub>i</sub> [<sub>Agro</sub> [<sub>VP1</sub> bought *t<sub>i</sub>*]]]

(6a)에서 목적어가 목적격을 점점 받기 위해 [Spec, Agro]로 이동하면 (6b)와 같은 LF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VP1(*bought t<sub>i</sub>*)을 복사해서 동사구가 생략된 [<sub>VP2</sub> e]에 (6c)와 같이 붙여 넣으면 (6a)가 나타내는 올바른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제에 의하면 Baltin이 QR에 대해서 제기했던 예문들도 잘 절명할 수 있다.<sup>5)</sup>

그런데 만약 ACD 구문의 인허가 LF에서의 목적격의 점점과 관련이 있다면, 목적어가 없는 부가어 ACD(adjunct ACD) 구문을 포함하는 문장들은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음의 부가어 ACD 구문을 살펴보자.

- (7) John recited his lines in the same way that Bill did.

- (8) John talked to everyone that Bill did.

Hornstein은 위의 (7)과 (8)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간주한다. 먼저, (7)의 경우에 Hornstein은 부가어가 동사구에 부가되어 생성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곳에서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만약 위에서 부가어가 주절의 동사구에 부가되었다고 가정하면 (7)의 구조는 다음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p>5)</sup>Hornstein(1994) 참고.

(9) John [<sub>VP</sub> [<sub>VP1</sub> recited his lines] in the same way that Bill did [<sub>VP2</sub> e]]

(9)에서 VP1을 VP2로 복사하면 아래 (10)과 같이 올바른 LF 표상을 얻을 수 있다.<sup>6)</sup>

(10) John [<sub>VP</sub> [<sub>VP1</sub> recited his lines] in the same way that Bill did [<sub>VP2</sub> recited his lines]]

두 번째 (8)의 경우는 전치사구가 LF에서 격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전치사 *to*를 Larson(1988)에 의해 제안된 것처럼 영어의 여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고려하면 전치사 *to*에 의해 인도되는 구가 여격의 점검을 위해서 [Spec, AgrIO]까지 이동한다. 따라서 (8)의 LF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1) John [<sub>AgrIO</sub> [to everyone that Bill did [<sub>VP2</sub> e]]]<sub>i</sub> [<sub>VP1</sub> talked <sub>t<sub>i</sub></sub>]

(11)에서 주절의 VP1을 VP2로 복사하면 아래의 (12)와 같이 올바른 LF 표상을 얻을 수 있다.

(12) John [<sub>AgrIO</sub> [to everyone that Bill did [<sub>VP2</sub> talked <sub>t<sub>i</sub></sub>]]]<sub>i</sub> [<sub>VP1</sub> talked <sub>t<sub>i</sub></sub>]

### 3.2. 문제점

#### 3.2.1. 개념적 문제점

<sup>6</sup>하지만 이러한 설명으로 ACD 구문의 역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다음의 LF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공운동자인 Op가 변항을 결속하지 못하는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가 발생한다.

(i) John [<sub>VP</sub> [<sub>VP1</sub> recited his lines] in the same way Op that Bill did [<sub>VP2</sub> recited his lines]]

먼저 Hornstein은 목적어가 LF에서 격점검을 위해서 [Spec, Agro]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어의 이동은 운용자만 이동하는 A'-이동과는 달리, 전체 NP가 함께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Hornstein 1994:46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문자화(Spell-Out) 이전에 음성형태의 합치를 위해서 점검을 위한 자질과 함께 어휘 요소까지 수반이동하는 명시적 이동과, 문자화 이후에 점검을 위해 필요한 자질만 움직이는 비명시적 이동을 구별하고 있는 최소주의 이론에서는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QR이나 목적격 점검과 같은 LF 이동은 경제원리에 의해서 점검에 필요한 자질과 더불어 형식 자질만 움직인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LF A-이동을 통해서 이동하는 자질이 단지 점검에 필요한 형식자질들 뿐이라면, LF A-이동에 의해서는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3.2.2. 경험적 문제점 : Kennedy(1997)

Kennedy(1997)는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례들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재구조화(restructuring)와 관련한 예문들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어 ACD 구문과 관련된 것들이다.<sup>7)</sup> 먼저 재구조화 동사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 이탈리아어 예문의 중간구조를 살펴보자(Rizzi, 1978).

(13) Gianni {v deve presentare} **la** a Francesco  
'Gianni has to introduce her to Francesco'

위의 예문에 재구조화가 적용되면 아래의 (14a)와 같이 두 개의 동사(*deve*, *presentare*)가 하나의 동사로 재구조화되어 단문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위의 문장의 접어 *la*가 주동사인 *dovere*(= have to, must) 앞으로 옮겨가서 (14b)와 같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4) a. Gianni [v deve presentare] **la** a Francesco.  
'Gianni has to introduce her to Francesco.'

<sup>7)</sup>이러한 재구조화 동사에 대한 논의는 스페인어(Aissen and Perlmutter, 1983)나 이탈리아어(Rizzi, 1978)와 같은 로망스 언어의 접어(clitic)의 이동과 관련해서 주로 시작되었다.



b. Gianni **la** [<sub>v</sub> deve presentare] a Francesco.

그런데 만일 위의 예문에서 재구조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의 구조는 여전히 두 개의 동사를 가진 복문으로 남아서 접어가 주동사 앞으로 움직이는 이동은 금지되고 아래와 같이 접어가 매입문에 부가되는 이동만 가능하게 된다.

(15) a. Gianni deve [<sub>s</sub> presentare **la** a Francesco]

b. Gianni deve presentar**la** a Francesco.

Hornstein은 재구조화 동사의 이러한 성질을 영어에 적용하여 재구조화 동사가 매입문의 논항이 절 경계를 넘어서 주절의 [Spec, Agr]까지 올라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Kennedy(1997)는 비재구조화 동사가 사용된 문장이나 비재구조화 문맥(non-restructuring context)에서 매입문의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Kennedy 1997:672).

(16)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 book her boss does.  
(wants her to read)

(17) Now that we're both in therapy, Marie wants to start to make the same changes in lifestyle that I do. (want to start to make)

(18) Which of your friends expects to visit which cities that you do? (expects to visit)

위의 (16)은 재구조화 동사의 내부 논항에 명시적 주어가 나타나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두 번째로 (17)은 다중매입(multiple embedding)에 의해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경우(Rizzi 1978:39-40)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8)은 주절에 비재구조화 동사가 쓰였지만 매입문의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 경우이다. 위의 예들은 모두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의하면 매입문의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지만 Kennedy에 의하면 위의 예문들은 모두 주절의 해석을 가질 수가 있다.

Kennedy가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대해서 제시한 또 다른 반례는 부가어 ACD 구문에 관한 것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19) Kollberg wanted to word every question as Beck did. (word)

위의 (19)는 주절의 동사 *want*가 재구조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ACD 구문의 생략된 VP가 매입문의 해석만을 갖는다. Hornstein은 위의 문장에 대해 부가어 *as Beck did*가 매입문의 동사 *word*에 부가되어 생성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역행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8)</sup> 그런데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20) Tim likes to perform 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 (likes to perform)

위의 (20)은 매입문의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다. 하지만 LF A-이동 분석에 의하면 매입문의 동사구에 부가된 부사구(*in the same clubs that Bill does*)는 이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다음은 부가어 ACD 구문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1) a. Tim has performed in every club Bill has [ e ].  
 b. Tim has [<sub>VP</sub> [<sub>VP1</sub> performed][<sub>PP</sub> in every club Op<sub>i</sub> Bill has [<sub>VP2</sub> e]]]

---

<sup>8)</sup>LF A-이동 분석에 의하면 (19)의 LF 구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i) [<sub>IP</sub> Kollberg [<sub>VP4</sub> wanted [<sub>IP</sub> PRO to [<sub>VP3</sub> [<sub>VP1</sub> word every question] [<sub>PP</sub> as Beck did [<sub>VP2</sub> e]]]]]]]

위에서 VP1을 복사하여 VP2에 붙여 넣으면 올바른 해석을 얻을 수 있다.

Hornstein은 부가어 ACD 구문의 구조를 (21b)와 같이 부가어 *in every club* *Bill has*가 동사구에 부가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위의 (21b)에서 VP1을 복사하여 VP2에 붙이면 (22)와 같은 구조를 얻을 수 있다.

(22) Tim has [<sub>VP</sub> [<sub>VP1</sub> performed]][<sub>PP</sub> in every club [<sub>CP</sub> Op Bill has [<sub>VP2</sub> performed]]]

그런데 위의 (22)는 ACD 구문의 역행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공운용자 Op가 변항을 결속하지 못하는 무위적 수량화(vacuous quantification)의 경우로 올바른 LF 표상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3) Beck read [<sub>DP</sub>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read a report on)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의하면 위의 (23)에서 목적어인 DP(*a report on every suspect Op Kollberg did*)가 격점검을 위해서 [Spec, Agro]로 이동하면 아래의 (24a)와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여기서 VP1(*read t<sub>i</sub>*)을 복사하여 VP2에 넣으면 (24b)와 같은 구조를 갖는다. 그리고 (24b)가 나타내는 의미는 아래의 (25)와 같다.

(24) a. Beck [<sub>AgroP</sub> [<sub>DP</sub> a report on every suspect Op Kollberg did [<sub>VP2</sub> e ]]<sub>i</sub> [<sub>VP1</sub> read t<sub>i</sub>]]  
 b. Beck [<sub>AgroP</sub> [<sub>DP</sub> a report on every suspect Op Kollberg did [<sub>VP2</sub> read t<sub>i</sub>]]<sub>i</sub> [<sub>VP1</sub> read t<sub>i</sub>]]

(25)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read.

하지만 (25)는 (23)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23)의 정확한 의미는 아래의 (26)이기 때문이다.

(26)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read a report

on.

이처럼 A-이동 분석은 명사 포함 ACD 구문(NP-contained ACD)의 정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ACD 구문과는 달리 명사 포함 ACD 구문은 동사뿐만 아니라 동사의 내부 논항까지 모두 포함하는 선행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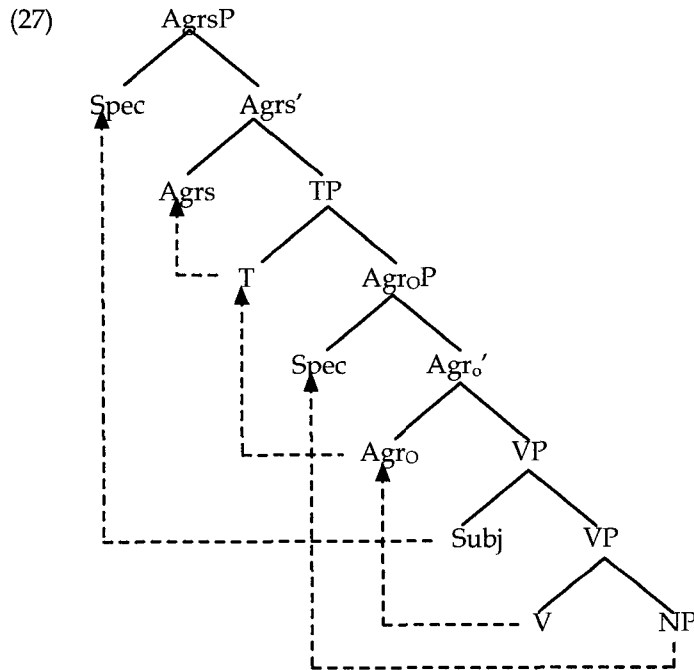
#### 4.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

##### 4.1. 명시적 목적어 인상에 의한 ACD 구문의 분석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이나 QR이 가지는 개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격 점검을 위해서 문자화(Spell-Out) 이전에 명시적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문자화 이전에는 음성형태 출력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점검을 위한 자질과 함께 어휘 요소까지 모두 수반 이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어가 문자화 이전에 명시적으로 이동한다면 관련된 모든 어휘요소들이 수반 이동함으로써 ACD 구문의 역행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Lasnik(1995)과 Koizumi(1993, 1995)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어에서 목적어가 [Spec, Agro]로 명시적으로 이동하고, 동사는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하겠다.

본고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구구조는 Chomsky(1994)의 기본 구구조를 받아들여 아래의 (27)과 같은 구조를 설정하고자 한다. 몇 가지 차이가 있다면 Chomsky(1993)와는 달리 목적어가 문자화 이전에 명시적으로 [Spec, Agro]로 이동하고, 그에 따라서 동사도 문자화 이전에 Agrs까지 이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주어의 위치는 Hornstein(1995:80)의 가정을 받아들여 주어가 VP에 부가되어 생성된다고 가정하겠다.<sup>9)</sup>

<sup>9)</sup>(27)의 구조에서 동사구내 주어가설(VP-internal subject Hypothesis)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Hornstein(1995:80, 미주 80)이 지적하듯이 V'-복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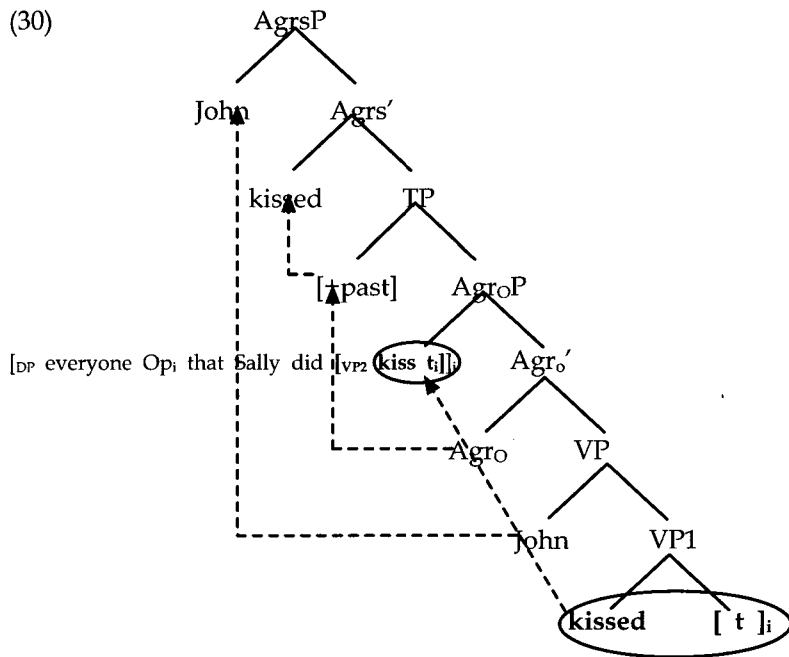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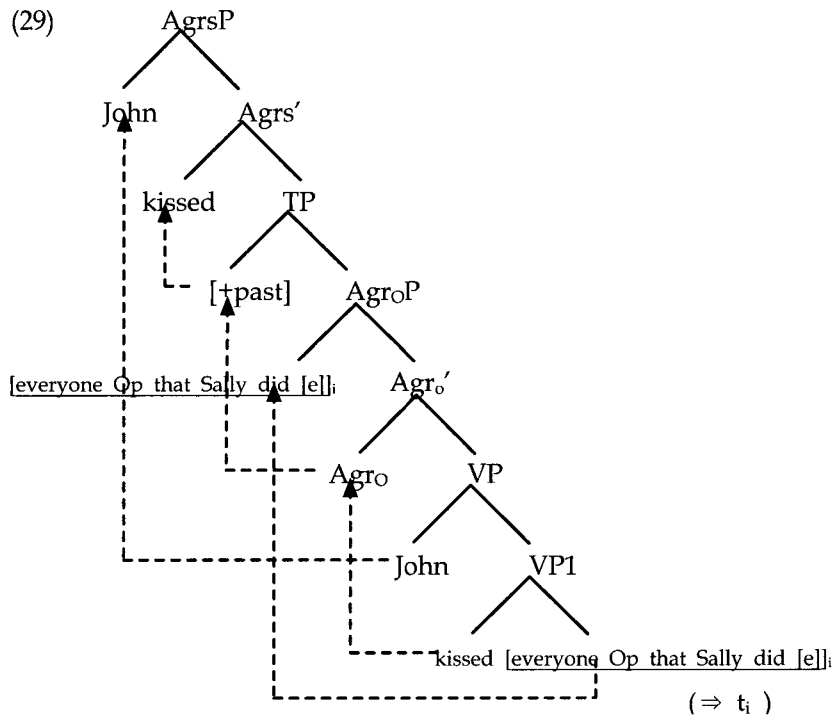


위의 (27)의 구구조를 전제로 앞에서 제시된 다음의 기본적인 ACD 구문을 살펴보자.

(28) John kissed everyone Op that Sally did [VP e].

위 문장을 위에서 제시된 구구조에 따라서 나타내면 다음의 (2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최소주의 이론에서 이동은 복사(copy)와 삭제(deletion)로 이해된다. 그런데 Brody(1995)는 매체 변환에 의해 양화사구의 복사만이 변항으로 변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10)</sup> 이러한 Lasnik과 Brody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29)의 구조에서 VP1의 내부논항의 위치에 있는 양화사구의 복사인 *everyone that Sally did*가 매체 변환에 의해 변항인  $t_i$ 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29)의 구조에서 VP1을 복사하여 생략된 VP2에 넣으면 다음 (30), (31)과 같은 LF 표상을 얻게 된다.

<sup>10)</sup>Wyngaard & Zwart(1991)에 의하면 매체 변환은 양화사구와 고유명사 모두에 구별없이 적용된다. 하지만 Brody는 매체 변환이 양화사구에만 적용되어 변항을 생성하고 고유명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31) [<sub>Agrs</sub> John kissed [<sub>AgrOP</sub> [<sub>DP</sub> everyone Op<sub>i</sub> that Sally did [<sub>VP2</sub> kissed t<sub>i</sub>]] [<sub>VP</sub> John [<sub>VP1</sub> kissed t<sub>i</sub>]]]] .

위의 (31)은 앞의 (28)의 ACD 구문이 나타내는 ACD 구문의 역행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또한 공운용자인 Op<sub>i</sub>가 변항인 t<sub>i</sub>를 결속함으로써 무위적 수량화로 인한 문장의 파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앞의 3.2.2.에서 Kennedy가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대해 제기한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 4.2. 비재구조화 문맥(Non-restructuring Contexts)과 ACD

먼저 Kennedy(1997:672)가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예문들을 다시 살펴보자.

- (32) Betsy's father wants her to read every book her boss does.  
(wants her to read)
- (33) Now that we're both in therapy, Marie wants to start to make the same changes in lifestyle that I do. (want to start to make)
- (34) Which of your friends expects to visit which cities that you do? (expect to visit)

위의 (32)는 재구조화 동사(*want*)의 내부논항에 명시적 주어(*her*, *Betsy*)가 나타나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리고 (33)은 다중매입(multiple embedding)에 의해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경우이다(Rizzi 1978:39-40). 마지막으로 (34)는 비재구조화 동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CD 구문이 주절의 해석을 갖는 경우이다. 위에서 Kennedy가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제시한 예들이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Kennedy가 제시한 예들이 명시적(혹은 비명시적) A-이동 분석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상반된 예들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Kennedy(1997:672)가 제시한

(32)의 예문과 비교해서 다음 예문(Hornstein 1994:461-462)을 살펴보자.

(35) Which student wants to visit which city that you do? (visit, want to visit)

(36) Which student wants them to read which book that you do? (read)

위의 (35)의 ACD 구문은 주절에 재구조화 동사 *want*가 사용됨으로써 매입문의 해석과 주절의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그런데 (36)은 재구조화 동사의 내부논항으로 명시적 주어(*them*)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Kennedy가 제시한 (32)나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35)와는 달리 ACD 구문이 경계 제약 효과를 보여주는 매입문의 해석만을 갖는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Kennedy가 제시한 (32)가 Hornstein이 재구조화 동사의 성질을 이용한 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 반례가 될 수는 있지만, (35)와 (36)과 같은 예문이 존재하는 한 Hornstein의 주장에 대한 심각한 반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2</sup> 다음으로 Kennedy가 제시한 (33)의 경우를 살펴보자. Kennedy는 위의 (33)이 다중매입에 의해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Kennedy의 주장은 Rizzi(1978:156)의 다음 이탈리아어 예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36) A quest'ora, Mario avrebbe dovuto averlo già finito, il suo lavoro.

'At this time, Mario would have had to have already finished it, his work.'

(37) \*A quest'ora, Mario lo avrebbe dovuto aver già finito, il suo lavoro.

<sup>11</sup>Hornstein(1994:462) 참고.

<sup>12</sup>(32), (35), (36)의 예문이 보이는 모순되는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재구조화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상반된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At this time, Mario it would have had to have already finished, his work.'

위의 (37)에서 매입문에 있던 대명사(*lo, it*)가 주절의 동사를 넘어갈 수 없는 이유는 재구조화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36)에서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Rizzi는 이탈리아어에서 둘 이상의 완료 시상 표지(perfect aspect marker)를 포함하고 있는 단일 동사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sup>13)</sup> 따라서 Kennedy가 다중매입에 의해 재구조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던 (33)은 완료 시상이 매입문과 주절에 동시에 사용된 이탈리아어의 재구조화에 대한 제약이 영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34)의 예를 살펴보자. 위의 (34)의 예문과 다음의 예문(Hornstein 1994:462)을 비교해보자.

(38) Which student expects to visit **which city** that you do? (visit)

위의 (38)은 Kennedy가 제시한 (34)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매입문에서 ACD 구문을 포함하고 있는 *wh*-구(*which city*)가 Kennedy가 제시한 (34)의 *wh*-구(*which cities*)와는 달리 단수라는 점이다. 그런데 (38)의 예는 경계 제약 효과에 의해 ACD 구문이 매입문의 해석만을 갖는다. 이처럼 Kennedy가 제시한 (34)의 ACD 구문은 경계 제약 효과를 보이지 않고, 반면에 이와 구조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38)은 경계 제약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ACD 구문의 해석에 재구조화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sup>14)</sup>

<sup>13</sup>Rizzi(1978:156)는 이탈리아어에서 재구조화가 V-V, Aux-V-V, V-Aux-V의 연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Aux-V-Aux-V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가진 (36)이 재구조화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is constraint is rather natural on intuitive grounds: it forbids the creation of a single verbal complex containing more than one perfect aspect marker, a restriction which is trivially respected by base generated verbal complexes."

<sup>14</sup>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재구조화 이외의 어떠한 요인이 정확하게 작용하

### 4.3. 부가어 ACD 구문의 분석

먼저 최소주의 이론에서 주격이나 목적격의 점검은 지정어-핵 관계(spec-head rel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Hornstein(1995)은 이러한 관계를 전치사와 그 목적어의 격 점검에까지 확장시켜서 전치사의 목적어도 동사의 목적어처럼 의미역이 부여되는 위치( $\theta$ -position) 밖의 AgrP에서 지정어-핵 관계에 의해서 격점검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있다.<sup>15)</sup> 그리고 전치사가 그 목적어보다 앞에 나타나는 영어의 어순을 고려하면 전치사가 최종적으로 AgrP보다 더 높은 위치로 다시 한 번 이동해야 하는데, 이 위치를 AgrsP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39)와 같은 구조를 생각할 수 있다. (39)와 같은 전치사구의 구조와 앞에서 제시한 구구조 (29)를 염두에 두고 Kennedy가 제기한 다음의 두 예문을 살펴보자.

(40) Tim has performed in every club Bill has.

(41) Beck read a report on every suspect Kollberg 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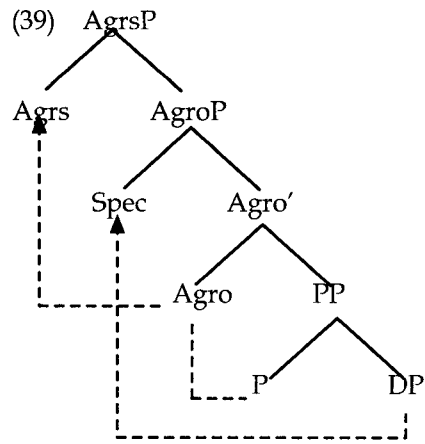
---

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단지 본고에서는 로망스어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재구조화와 관련된 논의를 영어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상반된 자료들이 많이 존재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에 만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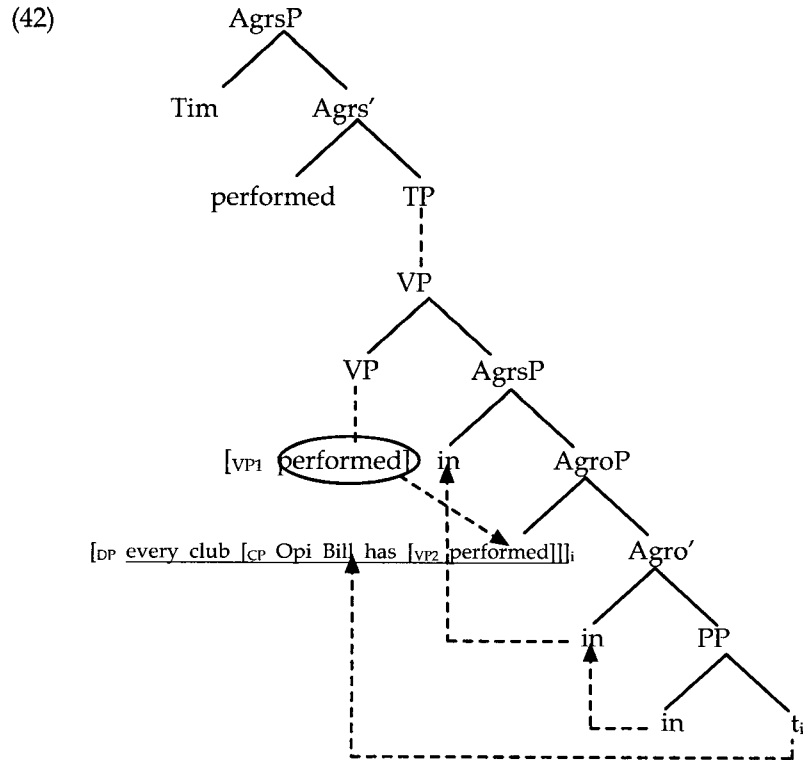
<sup>15)</sup>영어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독일어의 경우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전치사에 따라서 명사가 3격을 갖거나 4격을 가지게 된다.

- (i) Ich spreche mit<sup>3</sup> dem Mann.  
I speak with the man  
(ii) Ich arbeite für<sup>4</sup> den Mann.  
I work for the man

위의 독일어의 예를 보면 전치사와 그 목적어가 일치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일치현상은 독일어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가지고 있는 격이 전치사와 지정어-핵 관계(spec-head relation)를 통해서 점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에서도 외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전치사의 목적어와 전치사가 일치 자질을 점검하는 범주를 가정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구조를 염두에 두고 Kennedy가 제기한 (40)의 구조를 더 자세히 나타내면 다음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3) Tim [<sub>AgrsP</sub> [<sub>Agrs'</sub> has performed ... [<sub>VP</sub> [<sub>VP1</sub> performed] [<sub>AgrsP</sub> in [<sub>AgroP</sub> [<sub>DP</sub> every club [<sub>CP</sub> Op<sub>i</sub> Bill has [<sub>VP</sub> performed]]] [<sub>Agro'</sub> (in [<sub>PP</sub> in t<sub>i</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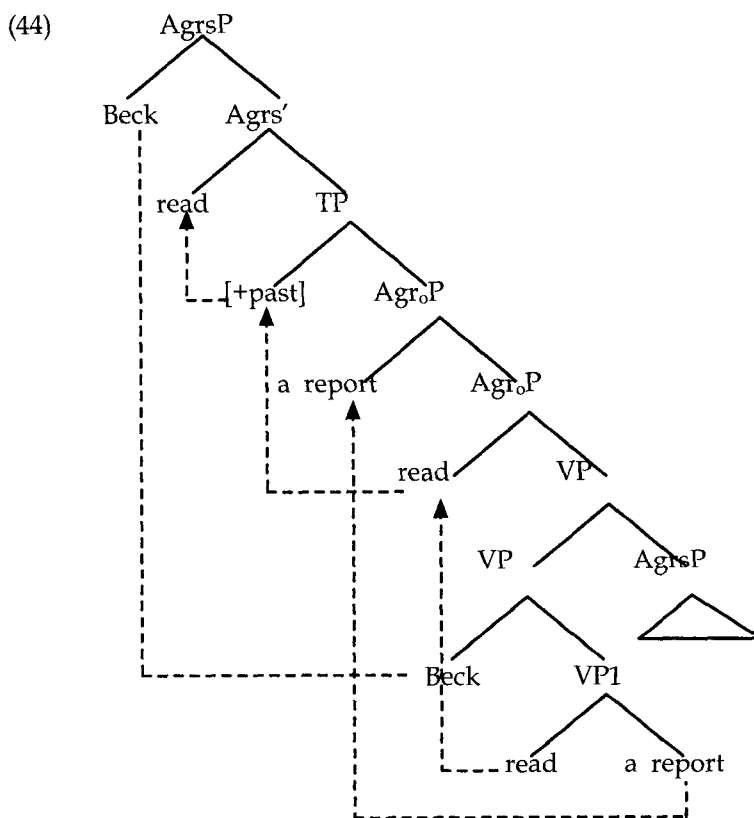
위 (42)에서 전치사의 목적어인 양화사구는 격 점검을 위해서 AgroP로 이동하고, 전치사는 Agro를 거쳐 Agrs로 이동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양화사구의 복사는 매체 변환에 의해서 변항 t<sub>i</sub>으로 바뀌게 된다. 위 (42)에서 VP1을 복사하여 VP2에 넣으면 (43)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LF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위의 (43)은 (40)의 ACD 구문이 나타내는 역행문제를 잘 해결하는 동시에 앞에서 지적한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있다.<sup>16)</sup>

이제 Kennedy가 제시한 두 번째 예문인 (41)의 구조를 나타내보면 다음 (44)와 같다. 전치사구의 구조는 (39)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일하다. 따라서 위의 (42)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양화사구는 전치사와 지정어-핵 일치를 통한 격점검을 위해서 [Spec, AgroP]로 이동하고, 뒤에 남은 양화사구의 복사인 *every suspect Op Kollberg did* [<sub>VP2</sub> e]는 매체 변환에 의해 변항 t<sub>i</sub>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작용들을 모두 고려하면 (41)의 LF 구조는 다음의 (4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up>16</sup>위의 (42), (43)에서 전통적인 성분통어의 개념에 의하면 [Spec, CP]에 있는 공운용자인 Op<sub>i</sub>가 변항 t<sub>i</sub>을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Hornstein(1995:121)은 다음과 같이 기능범주와 어휘범주를 구별하는 성분통어의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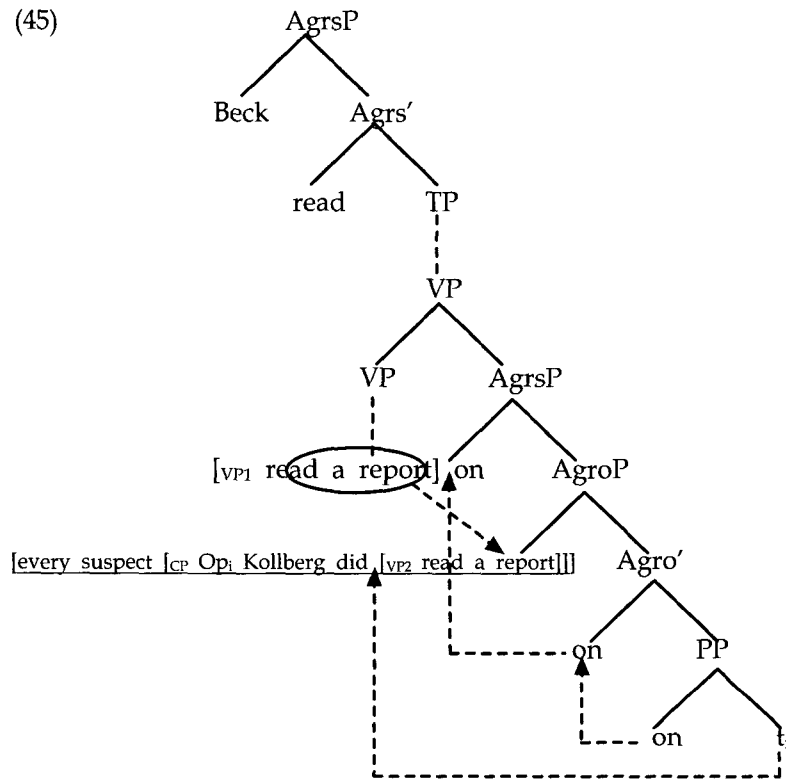
A를 지배하는 모든 어휘범주가 B를 지배할 때에만 A는 B를 성분통어한다. (A c-commands B iff every lexical category that dominates A dominates B.)

위에서 제시된 성분통어의 정의에 따르면 AgrP나 CP같은 기능 범주들은 성분통어 관계를 정하는데 있어서 제외된다. 그러면 [Spec, CP]에 있는 공운용자인 Op<sub>i</sub>는 위의 정의에 따라서 변항인 t<sub>i</sub>를 성분통어할 수 있게 된다.



(45)에서 VP1에 있는 [ $_{VP1}$  read a report]를 복사하여 VP2에 넣으면 (46)과 같이 Kennedy가 지적했던 ACD 구문의 역행문제와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올바른 LF 표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45)에서 동사의 목적어인 *a report*는 양화사구가 아니므로 양화사구의 복사만을 변항으로 바꾸는 Brody의 매체 변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의 구조에서 VP1(*read a report*)를 그대로 복사해서 생략된 VP2에 넣으면 아래의 (46)과 같이 올바른 LF 구조를 얻을 수 있다.

(45)



(46) [<sub>AgrsP</sub> Beck [<sub>Agrs'</sub> read [<sub>TP</sub> ... [<sub>AgroP</sub> a report [<sub>Agro'</sub> ... [<sub>VP</sub> [<sub>VP1</sub> **read a report** ] [<sub>AgrsP</sub> on [<sub>AgroP</sub> [<sub>DP</sub> every suspect [<sub>CP</sub> **Op<sub>i</sub>** Kollberg did [<sub>VP2</sub> read a report]]] [<sub>Agro'</sub> (on) [<sub>PP</sub> on *t<sub>i</sub>*]]]]]]]]].

### 5. 결론

지금까지 QR과 Hornstein의 LF A-이동 분석이 가지는 여러 가지 경험적, 개념적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최소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QR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ACD 구문의 역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에 필요한 자질뿐만 아니라 어휘요소까지 LF에서 수반이동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QR 뿐만 아니라 Hornstein이 주장한 LF A-이동 분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QR과 LF A-이동 분석을 버리고, ACD 구문의 역행문제와 무위적 수량화의 문제를 명시적 목적어 인상과 매체 변환이라는 기제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는 목적어가 격점점을 위해서 문자화 이전에 움직인다면, 이러한 이동은 음성형태의 합치를 위해서 당연히 관련된 어휘요소까지 수반이동할 것이므로 위에서 QR과 LF A-이동 분석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던 LF에서 양화사나 목적어가 어휘요소까지 수반이동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QR이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뿐만 아니라, Kennedy(1997)가 LF A-이동 분석에 대해서 제기했던 몇 가지 경험적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었다. 비록 본고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QR이라는 통사적 작용(syntactic operation)은 버렸지만, 양화사가 운용자로서 변향을 결속해야 한다는 의미적 특성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그러한 양화사의 특성은 양화사의 복사만이 변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Brody의 매체 변환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여전히 남아있다. 만약 지금까지의 본고에서 진행된 논의가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은 QR이 없다는 주장과 영어에서 목적어가 명시적으로 이동한다는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양동휘. 1998. 『최소주의 이론』. 서울: 한신문화사.
- Aissen, J. and D. Perlmutter. 1983. Clause reduction in Spanish. In D. Perlmutter, ed., *Studies in Relational Grammar 1*, 360-40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altin, M. 1987. Do antecedent-contained deletions exist? *Linguistic Inquiry* 18, 579-595.
- Brody, M. 1995. *Lexico-Logical Form: A Radically Minimalist Theory*.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K. Hale and S.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 Haegeman, L. 1994. *Introduction to Government &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igginbotham, J. and R. May. 1981. Questions, quantifiers, and crossing. *The Linguistic Review* 1, 41-79.

- Hornstein, N. 1994. An argument for minimalism: The case of antecedent-contained deletion. *Linguistic Inquiry* 25, 455-480.
- Hornstein, N. 1995. *Logical Form: From GB to Minimalism*. Oxford: Blackwell.
- Hornstein, N. 1999. *Working Minimalism*. Cambridge, Mass.: MIT Press.
- Kennedy, C. 1997. Antecedent-contained deletion and the syntax of quantification. *Linguistic Inquiry* 28, 662-688.
- Koizumi, M. 1993. Object agreement phrases and the split VP hypothesis.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8.
- Koizumi, M. 1995. *Phrase Structure in Minimalist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 Larson, R. 198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 335-391.
- Larson, R. and R. May. 1990. Antecedent containment or vacuous movement: Reply to Baltin. *Linguistic Inquiry* 21, 103-122.
- Lasnik, H. 1993. Lectures on Minimalist Syntax. Ms, University of Connecticut.
- Lasnik, H. 1995. Last resort. In S. Haraguchi and M. Funaki, eds., *Minimalism and Linguistic Theory*, 1-32. Tokyo: Hituzi Syobo.
- May, R. 1985. *Logical Form*. Cambridge, Mass.: MIT Press.
- Rizzi, L. 1978. A restructuring rule in Italian syntax. In S. J. Keyse, ed., *Recent Transformational Studies in European Languages*, 113-158. Cambridge, Mass.: MIT Press.
- Wyngaerd, G. and J. W. Zwart. 1991. Reconstruction and vehicle change. In F. Drijkoningen and A. van Kemenade, eds., *Linguistics in the Netherlands*. Amsterdam: John Benjamins.

곽희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우편번호: 151-748  
 전화번호: 02) 880-7670  
 E-mail: heeshink@dreamwiz.com

접수일자: 2002. 10. 14.

게재결정: 2002. 11. 22.